

2015년 통권 제 23권 제 2호

2015年度
歷史紀行班
春季古蹟踏查



亞洲大學校

목차

- 답사 일정
- 우리가 가는 길
- 강화도 지역개관
- 강화 역사박물관

<선사시대>

1. 강화지석묘

<고려시대>

2. 전등사
3. 정족산 사고
4. 삼랑성
5. 고려궁지

<조선시대>

6. 갑곶돈대
7. 광성보
8. 덕진진
9. 초지진

<개항기>

10. 병인양요
11. 신미양요
12. 성공회 강화성당

답사 일정

TP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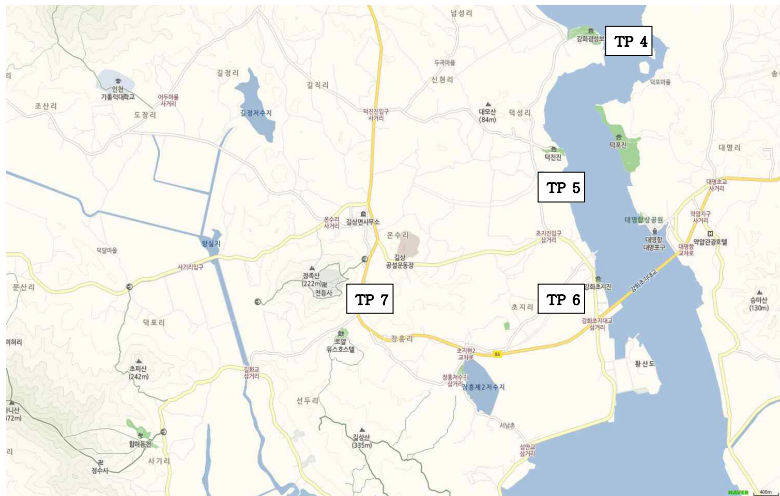
<첫째 날>

강화 역사박물관 → 강화지석묘 → 갑곶돈대 →
광성보 → 덕진진 → 초지진 → 숙소

<둘째 날>

숙소 출발 → 전등사 → 고려궁지 → 성공회 강화
성당 → 아주대학교 도착

우리가 가는 길



TP1. 강화역사박물관	5. 덕진진
2. 강화지석묘	6. 초지진
3. 갑곶돈대	7. 전등사
4. 광성보	8,9. 고려궁지, 성공회강화성당

강화도 지역개관

15 오유진



▲조선후기 지방지도 강화부 전도

강화도는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위치해 있고 우리나라에서 5번째로 큰 섬이다. 강화도는 본래 김포반도와 연결되어 있었으나 오랜 세월의 침강으로 내륙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뒤 여러 개의 구릉으로 둘러싸인 섬이 되었다. 현재는 1970년에 개통된 693m의 강화대교가 육지와 섬을 잇고 있다.

강화도의 역사와 문화는 한반도 역사의 축소판으로도 불리울만큼 선사에서 근현대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많은 국난을 겪어서 민족의 한이 담겨 있는 곳이지만 유서 깊은 문화재들이 남아있어 역사를 되새길 수 있는 중요한 곳이다. 강화도의 역사는 선사시대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는 강화도에서 발견된 구석기, 신석기 유물과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 유물인 고인돌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삼국시

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강화도는 지역적 특색으로 인하여 군사적 요충지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강화도는 고려의 수도인 개성과 조선의 수도인 한양을 가는 길목이며, 갯벌이 넓고 물살이 세기 때문에 배를 정박할 곳이 거의 없는 천혜의 요새였던 것이다. 또 고려시대에 강화도는 몽골 항쟁의 근거지였다. 몽골의 침략으로 인해 고종이 고려의 수도인 개경에서 강화도로 천도하였는데 이는 강화도가 장기 항전에 유리하기 때문이었다. 이 후 강화현은 강화군으로 승격되었고 강도라고 불리며 약 40년간 수도의 역할을 했다. 이 시기에 부처의 힘으로 외적을 방어하겠다는 마음으로 팔만대장경이 조판되었다.

강화도는 조선시대에 보장처¹⁾의 역할을 수행하여 정묘호란이 일어났을 때는 국왕의 피난처였고,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는 인조의 피신시도가 있기도 하였

1) 왕실과 조정이 잠시 피난하면서 전란을 극복하는 곳

다. 강화도는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함락되기도 했지만 이는 효종과 숙종에게 군사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겨주었다. 그리하여 병자호란 이후 강화도는 군사기지인 12개의 진, 보가 설치되었고 섬을 빙 둘러싸고, 상륙하는 적을 감시하며 전투를 벌이는 최전방 해안관방시설인 53개의 돈대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방어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에도 강화도의 위기는 계속되었다. 1866년에 프랑스가 흥선대원군의 천주교 탄압에 대항한다는 명분으로 강화도를 침범한 사건인 병인양요가 일어난 것이다. 양헌수 장군이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격파하였으나 프랑스군이 퇴각하면서 외규장각의 도서를 약탈하였다. 그로부터 5년 후인 1871년에는 미국이 제너럴셔먼호 사건을 빌미로 통상을 요구해오면서 강화도에 무력으로 침략한 신미양요가 일어난다. 초지진과 덕진진을 무력으로 점령한 미군은 광성보마저 넘보면서 치열한 격전을 치렀는데, 이 때 조선군 지휘관인 어재연 장군과 200여명의 병사가 모두 장렬히 전사했다고 한다. 1875년에는 일본 군함 운요호가 강화도에 불법으로 침입한 운요호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때 운요호 사건으로 인해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이 강제 체결되었다.

이처럼 강화도는 많은 외침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한반도를 지켜낸 호국의 보루이자 천혜의 요새이다. 이곳은 많은 국난으로 인한 전쟁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러한 아픈 흔적들이 지금은 유서 깊은 문화재가 되어 선조들의 피와 땀을 돌이켜보게 한다.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지키려던 선조들의 노력을 잊지 않도록 강화도의 역사적 사건들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해야 할 것이다.

강화 역사박물관

15 박건희



▲ 강화역사박물관 전경

강화역사박물관은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강화 고인돌 공원 내에 위치해 있다. 역사관에서는 구석기 유물 3점, 신석기 유물 2점, 청동기 유물 29점, 고려 유물 100점, 조선 유물 28점, 근·현대 유물 12점, 기타 유물 3점으로 총 177점의 유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보관·전시·연구를 맡고

있다. 또한, 다양한 교육과 문화 행사를 진행하여 사람들에게 문화재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매년 기획전시를 열어 고려청자, 대장경, 외규장각 의궤 등의 특별전을 개최하여 그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있다. 최근에는 강화도의 유적과 변화과정을 시대별로 설명하는 영화를 상영하는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역사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상설 전시실에는 패월도, 충렬사상량문 등 강화의 선사시대 유적과 고려왕릉에서 출토된 유물을 전시할 뿐만 아니라 광성보 전투, 정족산성 전투의 모습도 재현하고 있어 선조들의 정신을 알리고 있다.

강화 고인돌



▲ 강화 지석묘

고인돌은 선사시대를 대표하는 유적으로서 정확히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경제·정치적으로 권력을 가진 지배층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인돌이라는 명칭은 납작한 돌 밑에 돌을 괴어 지상에 모습을 드러낸 ‘괴여 있는 돌’이라는 뜻의 ‘지석묘(支石墓)’를 우리말로 표현한 것이다. 그 형태는 지역마다 다양

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남방식과 북방식의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남방식은 기반식이라고도 하며, 지하에 큰 구멍을 내어 돌로 네 벽을 세워 무덤방을 만든 다음 뚜껑 역할을 하는 돌로 덮은 뒤에 다시 그 위에 큰 바위를 올려놓은 형태이다. 북방식은 탁자식이라고도 하는데, 지상에 상자 모양으로 돌을 세워 무덤방을 만든 다음 그 위에 넓고 큰 돌을 올려 덮는 형태이다.

강화 동종



▲ 강화 동종

강화 동종은 조선 숙종 때의 승려이자 장인인 사인 스님이 만든 가장 큰 종으로, 전체 높이 198cm, 입지름 138cm, 무게 2490kg이다. 강화 동종은 조선시대 때 강화성문을 열고 닫는 시간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종이다. 시장이나 성문 주변에 설치되어 백성들에게 출입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을 했다.

강화 동종에는 조선종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종의 꼭대기에는 두 마리의 용이 좌우로 얼굴을 맞대고 몸은 합쳐진 모양으로 용뉴²⁾ 역할을 하고 있다. 용의 입이 크게 벌어져 있어 이빨과 혀가 돌출되어 있다. 또한, 놀란 것 같은 사나운 눈은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종의 윗면은 반원 모양을 띄고 있으며 상대 위에 ㄱ자형의 턱이 있다. 이는 고

려시대 때 꽃잎을 세워 장식하여 어깨 부분이 돌출되었던 것이 변형되어 나타난 모습이라고 한다. 상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각형 모양의 유곽³⁾이 네 곳에 있는데, 그 안에는 아홉 개씩의 연꽃으로 이루어진 돌기가 있다. 몸통 중앙에 굽은 두 줄이 가로로 그어져 있어 상·하로 이등분되어 있다. 선 아래에는 제작 시기를 알 수 있는 글이 남겨져 있다.

2) 종의 꼭대기 부분의 용의 모습을 한 고리로, 이곳에 쇠줄을 연결하여 종을 매달.

3) 범종의 윗부분의 네 곳에 있는 네모난 데.

선 사 시 대 (先 史 時 代)

강화지석묘

강화지석묘

15 이경주



▲ 강화 부근리 지석묘

강화 부근리 지석묘는 인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에 위치해 있는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지석묘로 고인돌이라고도 불린다. 이 지석묘는 높이 2.6m, 개석의 길이 7.1m, 너비 5.5m로 남한 최대 크기의 북방식 지석묘이다. 1964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으며, 2000년에는 호주 케인즈 제 24

차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 고창, 화순의 고인돌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강화 지석묘는 두 개의 켜돌이 양쪽에서 덮개돌을 받치고 있다. 막음돌이 동서로 놓인 켜돌 사이에 남북에 각각 한 매씩 서있어야 하지만 현재는 남아 있지 않아 석실이 통로를 연상케 한다. 강화 지석묘는 우리나라 고인돌의 평균 고도보다 높은 해발 20~30m 고도에 자리하고 있다. 강화 지석묘가 높은 곳에 위치한 까닭은 농경지나 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곳에 주거지를 마련하고, 또 그와 가까운 곳에 묘를 조성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고인돌을 축성하기 위한 암석 채취나 운반을 고려하여 산에 가까운 곳을 입지로 선택한 것으로도 보인다. 주변 산지와 구릉에 분포하는 고인돌과 규모와 입지 면에서 현저한 차별성을 보이고 있어 강화도 북부지역 공동체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기념물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고인돌 축조집단을 통합한 유력자의 무덤의 역할도 하고 있다.

강화 고인돌의 특징은 강화의 북쪽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는 것이다. 가장 북쪽인 봉천산과 별립산 주변에 32기가 분포하고 고려산을 중심으로 90기 이상이 분포하고 있다. 또한 강화도에는 다양한 형태를 가진 고인돌이 곳곳에 분포되어 있는데, 그 예로 오상리 지역을 들 수 있다. 고려산 서쪽 낙조봉 아래에 위치한 오상리에는 고인돌 12기가 밀집해 있으며 고인돌의 다양한 크기와 형태를 보아 당시 여러 계층이 존재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고 려 시 대 (高麗時代)

전등사
정족산사고
삼랑성
고려궁지

전등사

15 고성진



▲ 전등사 전경

마리산 한 줄기가 서쪽으로 달리다가 세 개의 봉우리를 세우니 이산이 바로 정족산이다. 이 산에는 단군의 세 아들이 쌓았다는 삼랑성이 있다. 이곳 삼랑성 내에 전등사가 위치해 있다. 전등사는 고구려 소수림왕 11년에 아도화상이 세운 진종사로부터 시작되어 현존하는 사찰 중 가장 오래된 사찰이다. 전등사가 왕실과 인연을 맺으면서 국가적인 사찰로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시대부터라 할 수 있다. 고려는 국운을 길게 하기위해 1259년 전등사가 있는 삼랑성 안에 가궐⁴⁾을 지었고, 1246년에는 전등사에서 국가의 번영을 비는 ‘대불정오성도량’을 실시했다. 전등사는 1605년과 1614년 두 차례의 큰 불로 건물이 모두 소실되었다. 그러나 1615년부터 시작된 복원공사에 의해 1621년에 옛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 임진왜란과 정묘, 병자호란을 겪은 조선은 삼랑성에 사고를 지어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하였고 한일합방 후 전등사는 1911년 반포된 사찰령⁵⁾에 의해 조선불교 30본산의 하나가 되어 강화, 개성 등 6개 군에 있는 34곳의 사찰을 관리했다.

전등사는 반만년 역사의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이다. 오랜 시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사찰은 그 존재 자체로 우리가 대대손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유산이라 할 수 있다.

4) 임시로 지은 궁궐

5) 한일 합방 후 시행된 식민지 종교정책으로 조선의 불교계를 조종할 의도로 만든 법령

대웅보전

대웅전은 기둥 및 기둥과 기둥 사이에 화려한 공포가 올라가 있는 다포양식으로 지은 수려한 건축물이다. 규모는 작지만 살짝 치켜 올라간 화려한 겹처마와 두리기둥의 귀솟음이 어울려 건물이 비상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 대웅전에는 어느 사찰에서도 볼 수 없는 나부상이 있다. 이 나부상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전등사를 중건한 도편수에 관한 전설이다. 이 도편수는 공사를 진행할 때 마을 주모와 사랑에 빠졌는데 공사가 끝나면 주모와 함께 살 생각으로 자신의 노임을 모두 그 여인에게 맡겼다. 그러나 중건이 끝나기 전 주모는 다른 남자와 도망을 갔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도편수가 전등사 추녀 밑에 자신을 배반한 여자의 형상을 조각하고 중건을 마쳤다는 것이다. 두 번째 견해로는 나부상을 원숭이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이는 중국에서 원숭이나 사자, 용 등을 신장으로 모셨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원숭이를 모시는 예가 없으나 전등사에 사천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숭이를 신장으로 모신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편수를 배반한 주모의 형상을 조각한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약사전

약사전은 중생을 질병에서 구원해 준다는 약사여래를 모신 곳으로 약사불은 몇 년 전에는 석상이었으나 금빛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조선 중기에 건축되어 형식이 대웅보전과 매우 흡사하다. 다포 형식의 배흘림 두리기둥이 겹처마의 팔작 지붕을 받치고 있고 안솔림과 귀솟음 기법을 이용하여 처마의 선이 매끄럽고 화려하다. 천장의 가운데엔 우물천장을 두고 그 주변에는 화려한 연화당초문이 그려져 있다. 건물 밖에는 벽화를 그리지 않은 점이 특징이다.

범종

전등사의 범종은 중국 북송시대의 철제범종으로 우리나라에서 보물로 지정된 유일한 중국종이다. 범종은 1097년에 제작되어 중국 하남성의 승명사에 봉안되었던 것으로 높이는 1.64m이고 구경은 1m이다. 우리나라 종에서 볼 수 있는 용두의 음관은 찾을 수 없고 음관의 특징도 나타나지 않는다. 용뉴⁶⁾ 주위에 16개의 연잎이 새겨져있고 그 아래 9개의 국화문이 새겨져있다. 또한 그 아래 종신 상부에는 8괘가 둘러져있다. 범종이 왜 전등사에 안치되게 되었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범종은 일제강점기 때 공출되는 수모를 겪었으나 광복 후 부평의 군기창에서 발견되어 다시 전등사로 옮겨져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다.

6) 범종의 가장 위쪽에 있는 용의 모습을 한 고리

명부전

명부전에서 명부가 뜻하는 것은 염마왕이 다스리는 유명계 또는 명토⁷⁾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고, 명부전은 본래 지장보살을 모시고 죽은 이의 넋을 인도하여 극락왕생하도록 기원하는 기능을 하는 전각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49재가 열리는 곳이 바로 이 명부전이다. 1767년에 한영대사가 시왕을 다시 색칠하여 봉인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 명부전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명부전 내에는 지장삼존상이 봉안되어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왼쪽부터 무독귀왕 지장보살, 그리고 도명존자이다. 삼존상 뒤에는 1884년에 조성된 후불탱화⁸⁾가 있고 본래 이 불화 옆에도 2점씩의 불화가 있었으나 도난당하였다.

삼성각

삼성각은 1933년 주지인 보인대사가 창건했다고 한다. 전등사내 가장 뒤쪽에 위치하며, 다른 건물들처럼 축대 위에 세워져 있다. 삼성각은 본래 산신과 독성칠성 3신을 한 곳에 모신 곳으로 불교의 포용성을 보여주는 건축물이다. 산신은 민간토속 신앙이 불교와 융합되어 들어온 것이다. 칠성은 북두칠성을 말하는데, 별나라의 주군으로 인간의 복과 수명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독성은 십이인연(十二因緣)의 이치를 홀로 깨달아서 성인의 위치에 올라 말세 중생에게 복을 내린다고 한다.

목조석가여래삼존불상

대웅전에 있는 목조석가여래삼존불좌상은 17세기 전반에 수연이 수화승으로 참여해 1623년에 조성한 불상이다. 삼존불로서 삼세불이라고도 하며 삼존불은 법신(法身), 보신(報身), 화신(化身)의 세 부처를 말한다. 정면에서 볼 때 세 부처상은 근엄하고 자비로운 느낌이 들게 하고 세 부처가 각자 다른 표현기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각자의 개성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7) 사람이 죽은 뒤에 간다는 영혼의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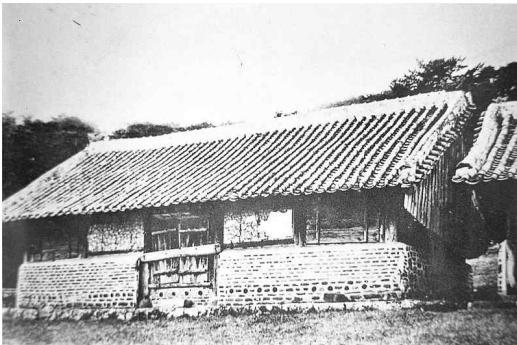
8) 법당의 불단 뒤쪽의 벽에 걸어놓는 족자에 그린 불화

정족산 사고

15 박건희



▲ 정족산 사고



▲ 정족산 사고의 복원 전 모습

사고(史庫)는 고려 말기부터 조선 후기까지 국가의 사기와 중요한 서적·문서를 보관하던 서고를 뜻한다. 서울에 있는 것을 내사고, 지방에 있는 것을 외사고로 구분하였다.

정족산 사고 (鼎足山 史庫)의 중심 업무는 역대 실록과 서책들을 보관하는 것으로, 내사고인 춘추관과 충주·성주·전주로 3개의 외사고가 있었다. 그러나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전주 사고본을 제외한 나머지 춘추관과 충주·성주 사고의 실록들은 모두 소실되었다. 그 이후 전주 사고본은 정읍의 내장산, 해주의 관아, 영변의 묘향산 등지를 거쳐 강화로 옮겨졌다. 전주 사고에 보관된 원본은 1606년 때 복인 과정을 거쳐 강화도 마니산으로 옮겨졌고, 복인본 3부는 서울의 춘추관, 영변의 묘향산, 봉화의 태백산에 각각 보관되었다.

1653년 마니산 사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정족산 사고의 건립의 필요성이 커졌고, 결국 1678년 실록이 정족산 사고로 옮겨지게 되었다. 정족산 사고의 실록은 일제 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 학무과 분실에 옮겨진 뒤, 1930년 경성 제국대학으로 다시 이관되어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다. 본래의 정족산 사고에는 1931년 전후로 일본인들에 의해 파손되어 전등사의 주춧돌과 계단석만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1999년 강화 문화권 사업으로 사고와 전등사 대조루에서 보존되어 오던 ‘선원보각’과 ‘장사각’의 현판도 함께 복원하여 현재에 정족산 사고의 옛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삼랑성

15 오유진



▲삼랑성

삼랑성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에 위치해있다. 세 발 달린 술을 거꾸로 얹어놓은 모양인 삼람성은 주봉인 정족산과 주변 두 개의 산봉우리를 연결해 축성한 성이다. 삼랑성이 만들어진 시기는 정확하지 않으나 고려가 1259년 삼랑성 안에 궁궐을 만들었다고 하니 그전에 이미 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성곽

이 쌓여진 모습에서 삼국시대 성의 구조를 찾을 수 있으므로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성으로 추측된다. 삼랑성에서 삼람은 단군의 세 아들을 뜻한다. 단군의 세 아들이 삼랑성을 지었다는 전설이 있기 때문이다.

삼랑성은 정족산성이라는 다른 이름이 있는데 이는 삼랑성이 정족산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삼랑성의 길이는 2300m에 달하며 처음에는 흙으로 쌓은 토성이었으나 삼국시대에 이르러 그 위에 막돌을 맞추어가며 쌓았고 성체 안에는 튼튼한 석성으로 축조되었다. 성내에는 고구려 소수림왕 11년에 창건된 전등사가 있다. 고려 고종 46년에는 삼랑성 안에 이궁을 지었으나 지금은 무너지고 터만 남아있다. 조선 현종 때에 삼랑성 사고에 조선왕조실록을 보관할 사고를 설치하여 정족산 사고라 이름 지었고 조선 영조 때 삼랑성을 보수하면서 남문에 문루를 건립하여 종해루라 이름 지었다.

삼랑성은 조선 고종 3년 병인양요 때 양헌수 장군이 프랑스 군에 맞서 싸운 곳으로도 유명하다. 양헌수 장군은 치열한 전투 끝에 삼랑성에 보관되었던 조선왕조실록과 왕실족보인 선원보각을 지켜내었다. 이때의 승리를 기념하여 남문에 양헌수 장군 승전비가 세워졌다. 비의 앞면에는 ‘순무천양공헌수승전비’라고 음각되어있고, 비 뒷면에는 양헌수 장군의 공적이 새겨져있다.

‘강도는 서울의 목구멍이고, 정족은 강도의 두뇌’라는 말이 있을 만큼 삼랑성은 강화도에서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곳에 위치해있다.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서 삼랑성은 고려시대에 걸쳐 조선시대까지 수도의 외곽을 방어하는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고려궁지

15 조혜민

고려궁지는 사적 133호로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에 있는 고려 궁궐 터이다. 고려궁지는 이 터에 세운 궁궐과 관아 건물을 포함한다. 그 궁궐과 관아 건물은 1232년 몽고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 송도로 천도한 이후 세워진 많은 강화 유적지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1234년에 세워졌으며, 1232년부터 1270년까지 39년 동안 이 궁터를 사용하였다.

강화도에는 정궁, 행궁, 이궁, 가궐 등 많은 궁궐이 있었다. 그 중 관청리에 위치하는 이 궁터에 있었던 궁궐은 정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궁궐의 정문은 승평문이며 양측에 삼층루의 문 2개가 있고 동쪽에는 광화문이 있었다. 그러나 이 문들은 다시 허물어지게 된다. 몽고가 계속해서 침입을 하는 까닭에 1270년 강화조약을 맺었고 다시 송도로 천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궁터에는 3단 석축기단과 돌계단만 남아있었고 이 때문에 고려궁지의 정확한 위치와 범위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조선시대에도 국난이 발생하였을 때, 수도를 강화로 천도하곤 하였다. 1631년, 고려의 옛 궁터에 행궁이 건립되었지만 병자호란 때 없어졌다. 그 이후 전각, 규장외각, 강화 유수부의 건물 등이 건립되었지만, 병인양요 때 불타서 사라졌다. 현재는 궁터에 강화 유수부의 동헌과 이방청만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강화 유수부 동헌



▲ 강화 유수부 동헌

강화 유수부 동헌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에 있는 조선시대의 관아이다. 이곳에서는 지금으로 따지면 군청과 비슷한 역할을 하였고, 그 역할은 강화 지방의 중심 업무를 보는 것이었다. 1637년에 왕이 강화로 피신했다가 복귀한 뒤 설치한 곳이며, 종2품 관청으로 1638년에 유수 김신국이 개수하였고 1769년에 유수 황경원이 현윤관이라고 이름 붙였다. 여러 번 보수를 한 탓에 원형을 찾아볼 수는 없다.

현재의 모습은 강화중요국방유적 복원 정화 사업을 통해서 완성된 것이다. 이 건물은 앞면 8칸·옆면 3칸의 규모이고, 지붕 옆면이 여덟 팔(八)자 모양인 팔작지붕집이다. 강화 유수부 동헌은 현재 경기유형문화재 제 47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방정

강화 유수부 안에 있는 관청 건물이다. 조선 효종 5년(1654)에 유수 정세규가 건립하였고, 정조 7년(1783)에 유수 김노진이 건물 내부를 보수한 후 쾌홀당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방정은 강화 유수 동헌과 같이 강화 유수부 건물인 만큼 비슷한 부분이 많다. 지붕 옆면이 여덟 팔(八)자 모양인 것과 원형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 현재의 모습이 강화중요국방유적 복원 정화 사업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은 강화유수 동헌과 공통된 부분이다. 강화 유수부 이방정은 현재 경기유형문화재 제 48호로 지정되어 있다.

외규장각



▲ 외규장각

외규장각은 1782년에 왕실 관련 자료 보관을 위해 강화도에 세워졌으며 규장각의 부속 도서관이다. 외규장각은 조선시대의 왕실 문화를 뚜렷이 보여줄 수 있는 곳 이었고, 외규장각 의궤는 왕이 열람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 제작된 당대 최고의 도서였다. 하지만 외규장각의 도서에는 아픈 역사가 있는데, 1866년 당시 프랑스 함대

의 로즈제독이 엄청난 양의 책들을 불태우고 외규장각 도서 340여권을 약탈한 것이다. 이 책들은 오랜 기간 동안 베르사유 도서관의 별관에 방치되어 있다가 프랑스 국립 도서관으로 옮겨져 보관되었다.

1975년이 되어서야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고 있던 박병선 박사에 의해 외규장각 도서의 존재가 밝혀지게 되었다. 1991년, 우리나라 정부는 프랑스 정부에 외규장각 도서를 반환해달라고 공식적인 요청을 했다. 이후 여러 차례 협상을 하였고 2010년, 서울 G20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전(前)대통령과 사르코지가 외규장각 도서를 5년마다 갱신 대여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마침내 2011년, 3차분의 의궤를 반환받아 297권의 책을 국내로 복귀시킬 수 있었다.

조 선 시 대 (朝 鮮 時 代)

갑곶돈대

광성보

덕진진

조지진

갑곶돈대

15 조현정



▲갑곶돈대

갑곶돈대라는 이름이 유래된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삼국시대 강화를 갑비고차(甲比古次)라고 불렀기 때문이라는 설이다. 두 번째 설은 고려시대 때 몽고군이 갑곶돈대 앞에 있는 강을 건너려고 했지만 실패하여, “우리 군사들의 갑옷으로 이 강을 메어도 건널 수 있을 텐데…….”라는 말과 함께 갑옷 갑(甲)과 쥔 곶(串)자를 써서 갑곶돈대라고 불렀다고 한다.

갑곶돈대는 고려 시대 때 몽고와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새였다. 몽고족은 태어나서 물줄기를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갑곶돈대 앞에는 200~300m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 몽고족은 결국 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건너편 문수산성에서 갑곶돈대만 쳐다보고 있어야 했다.

갑곶돈대는 고려 시대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서도 중요한 장소였다. 조선은 임진왜란(1592년)과 병자호란(1636년)으로 국방력이 많이 약화된 상태였다. 위협을 느낀 조선은 강화해협을 더욱 튼튼하게 하기 위해, 보와 진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또한 보와 진에 속해 있는 돈대와 포대도 추가로 설치했으며, 더 많은 군사들도 배치해 적의 침입에 항시 대기하고 있었다. 갑곶돈대는 한강을 따라 한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외국군대는 호시탐탐 갑곶돈대를 노리고 있었고, 갑곶돈대에서는 크고 작은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병인양요(1866), 신미양요(1871년), 운요호 사건(1875년)이 모두 갑곶돈대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특히, 신미양요에는 어재연 장군의 군사들이 전멸당하는 가장 잔혹한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아직도 갑곶돈대의 성곽과 나무에는 그 당시 전쟁

의 흔적이 남아있다. 당시 강화에는 5개의 진과 7개의 포, 53곳의 돈대와 7개의 포대, 8곳의 봉수대 등이 있었는데, 현재는 광성보, 초지진, 덕진진과 이곳에 포함되는 몇 개의 돈대와 포대만이 남아있다.

갑곶돈대 대포의 종류는 홍이포로 조선후기에 우리나라 군대에서 많이 쓰였던 종류이다. 홍이포라는 이름은 유럽 사람들이 쓰던 대포이기 때문에 ‘붉은 오랑캐의 포’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홍이포는 앞의 강을 지나가는 선박을 공격하기 위한 용도로 쓰였으며, 갑곶돈대에는 8개가 설치되어 있다. 포의 수는 많지 않지만, 낮은 지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명중률은 높다. 또한 갑곶돈대 안에 있는 이섭정은 1398년(태조 7년)에 강화부사 이성이 세운 2층 정자이다. 이 정자는 무너졌으나 1976년 문화재 복원 사업으로 인해 복원되고 이섭정이라고 현판되었다.

원형이나 사각으로 이루어진 다른 돈대와는 달리, 갑곶돈대는 자연지형의 모양에 따라 성벽을 지어놓고 있으며, 지나가는 선박을 감시하기 위해 높은 곳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주변경관이 뛰어나다.

광성보

15 조혜민



▲안해루

강화도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역사가 담겨있는 장소인 광성보는 빼놓을 수 없는 곳 중 하나이다. 광성보는 사적 제 227호로 강화 12진보 중 하나이다. 이곳은 고려시대 때부터 강화해협을 지키는 중요한 요새였다. 광성보는 여러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졌다. 몽고가 고려를 침략했을 때, 고려는 이에 맞서기 위해서 강화로 도읍을 옮겼다. 그 곳에서 흙과 돌을 섞어서 강화의

성을 쌓았다. 광해군 10년(1618)에 성의 첫 보수가 이루어졌고 효종 9년(1658)에 강화유수 서원리가 강화외성 안에 광성보를 축조하였다. 숙종 5년(1679)에는 일부를 돌로 고쳐 쌓아 완전한 석성으로 만들었다. 영조 21년(1745)에 최종으로 성벽을 고쳐 쌓으면서 성문을 만들었는데 그 성문을 안해루라고 한다.

광성보에는 성곽 시설 중 하나인 돈대라는 것이 있다. 평지에 있는 성에서는 적들이 쉽게 침입하지 못하도록 돈대를 가장 높은 평지에 높게 설치했다. 반면에 해안에 있는 성에서는 적들이 침입하기 쉬운 요충지에 설치했다. 외부에는 적을 막기 위해 성곽을 쌓았고 내부에는 적을 공격하기 위해 포를 쏘고 감시할 수 있는 군사시설을 설치하였다. 광성돈대, 용두돈대, 손돌목돈대가 숙종(1679) 때 만들어져 지금까지도 광성보에 남아있다.

이 곳 광성보는 신미양요의 격전지였다. 신미양요는 제너럴셔먼호 사건을 계기로 조선에게 개항을 요구하며 미군 군함3척이 강화도로 침입한 사건이다. 1871년 통상을 명분으로 미국의 로저스가 5척의 군함과 123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고 초지진을 침입하며 공격하였다. 초지진을 점령한 미국 해병대는 덕진진과 광성보를 함락시켰다. 이 때 진무중군에 임명되어 광성보를 수비하게 되었던 어재연 장군은 동생 어재순을 비롯한 조선군과 함께 구식의 무기로 맹렬히 싸웠지만 대부분의 조선 군사들은 전사하였다.

이 당시 문의누각과 성 위에 낮게 쌓은 담이 파괴되었었는데 1976년 다시 복원하면서 광성보 경내에 쌍충비각, 신미양요 순국 무명 용사비, 신미순의충 등이 건립되었다.

쌍충비각은 광성보 전투에서 활약한 어재연 외 59명의 충절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이며, 신미양요 순국 무명 용사비는 신미양요 때 어재연 장군 지휘 아래 함께 싸웠던 군사들이 순국한 것을 기리는 비이다. 비석의 명칭대로 순국했지만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이름을 모르는 군사들을 위한 비이다. 장군들은 지금까지도 전투 당시 외세에 맞서 용감히 싸우다 죽은 역사적 인물로서 알려지고 있지만 같이 싸웠던 일반 병사들은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신미순의충은 광성보 일대에서 미 해군과 싸우다 전사한 군사들의 묘이다. 전사한 53명의 군사 중 어재연과 어재순 장군은 고향인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에 안장하였고 51명의 군사들은 7기의 분묘에 나누어 합장하였다.

덕진진

15 조현정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강력한 군사 요충지였던 강화해협은 병자호란 이후 많이 약해졌고, 조선 조정은 강화해협이 더 이상 적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조선은 내성, 외성, 진보, 돈대 등을 추가로 축조했다. 그 중 진보는 1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덕진진은 이 12진보 중 하나이다.

덕진진은 군사적 지방 행정구역을 의미하며, 해군주둔지(수영)에 속해 있어 첨사라는 직책의 관리가 2개의 돈대와 2개의 포대를 관리하였다. 그러다가 1666년에 덕포로 이동하였다. 그 당시 강화 유수였던 서필원이 효종에게 덕진진을 덕포로 옮기면 군사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청탁했기 때문이다. 이후 1677년에 유수 허질이 숙종에게 청탁함으로써 덕진진을 만호로 승격하였다. 이 덕분에 덕진진에는 군관 26명 · 돈군 12명 · 병 100명 · 배 2척이 추가로 배정받을 수 있었다. 또한 숙종 5년에는 덕진돈대 · 용두돈대와 남장포대 · 덕진포대까지 관할하게 되었다. 이로써 덕진진은 다시 강화해협의 강력한 군사 요충지로 급부상하였다.

외적은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 다시 급부상한 덕진진을 반드시 점령해야했다. 덕진진에서 크고 작은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중 대표적인 사건이 병인양요이다. 병인양요 때 양현수 장군의 군사들이 이 덕진진을 통해 정족산성으로 들어가 야밤에 프랑스 군대를 기습하였다. 그 결과 양현수 장군의 군사들은 당황한 프랑스 군사들을 무찌를 수가 있었고, 아군의 피해는 적었지만 상대편 군대는 타격이 컸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칭송받는 전투 중 하나로 남아 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사건은 신미양요이다. 병인양요와는 달리 신미양요에서의 전투는 치욕스러운 전투로 남아있다. 덕진진에서 조선은 J.로저스 중장이 이끈 함대를 격파시킨 공적을 세웠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초지진에 상륙한 미국군대에 의해 덕진진을 점령당했고, 몇몇의 부상자를 빼고는 전부 목숨을 잃게 되었다. 이 때, 몸을 숨길 수 있었던 낮은 담과 성첩, 문루, 돈대, 포대 모두 손상되었다.

1976년 문화재 복구사업으로 인해 돈대와 성각을 고치고 남장포대도 고쳐 쌓았으며, 옆면 2칸·앞면 3칸의 문의 누각도 다시 세워졌다. 또한 당시의 대포도 복원하여 설치되었다. 현재로는 덕진진에 포대, 성곽, 문루, 돈대가 남아있다.

초지진(草芝鎭)

15 정영찬

1866년 병인양요, 1871년 신미양요, 1875년 운요호 사건, 이 세 개의 역사적인 사건에는 모두 공통점이 있다. 세 개의 사건 모두 외적의 물리적인 공격이 있었다는 점과 이러한 침략을 막아낸 그 곳에 항상 초지진이 있었다는 점이다.

초지진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에 위치한 조선시대 때 해안가에 침입하는 적을 물리치기위해 만든 진(鎭)이다. 1656년에 요새로 건립되었다가 1679년에 성으로 축조되었다. 면적은 약 4,233m² 이고 성곽의 둘레는 500m가 채 안 되는 아주 작은 규모이다. 성의 구조를 살펴보면 성벽의 높이는 4m정도 이고 장축의 길이는 약 100m정도의 타원형 모양이다. 원래 초지진은 초지돈, 장자평돈, 섬암돈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위에서 언급한 세 사건에 의해 대부분의 구조물이 파괴되어 1973년에 초지돈만 복원되었고 복원되기 2년 전인 1971년에 사적 제225호로 지정되었다.

초지진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여러 차례의 물리적인 공격을 받았다.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때 각각 프랑스군과 미군들의 공격을 받았고 운요호 사건 때에는 일본군의 공격을 받았다. 이러한 세 번의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운요호 사건일 것이다. 운요호 사건은 일본 군함 운요호가 초지진 주변 해안을 침범하자 해안 경비를 서고 있던 조선 수군들이 운요호를 공격하고 운요호는 그에 대한 보복으로 초지진에 포격을 가하였던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초지진의 포대는 대부분 파괴되었다. 이로 인해 조선 수군은 밀리게 되어 많은 수군들이 죽고 민간인 또한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약탈도 많이 당했다. 하지만 오히려 먼저 공격을 했다는 이유를 빌미로 일본의 정치적, 군사적 지배를 위한 강화도 조약을 요구하게 되는데, 강화도 조약은 근대에 이뤄진 최초의 조약으로, 3개의 항구 개방과 조선 내에서의 일본인에 대한 치외 법권의 인정, 해안 측량권을 내어주는 등 불평등한 조약이다. 결국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그렇게 일본의 간섭이 쭉 이어져 몇 십 년 후에는 우리나라의 국권을 약탈당하고 만다. 이렇듯 강화도 특히, 그 중에서도 초지진은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많이 지니고 있는 장소이다.

홍이포(紅夷砲)



▲ 홍이포

홍이포는 길이 2.15m, 무게 1,800kg 정도의 포구장전식 화포로 구경은 100mm, 사정거리는 약 700m 정도이다. 이러한 홍이포는 조선시대 영조 때부터 사용되어져 왔는데 과거엔 강화도에 있는 다른 진(鎭)에도 있었지만 대부분 손실되어 초지진에 있는 포를 빼놓고는 전부가 장식에 불과한 모형들이다. 홍이포는 본래 네덜란드의 화포였는데 당시 명나라를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와 그 모양이나 크기가 많이 변형된 것으로 보인다.

개 항 기 (開 港 期)

병인양요

신미양요

성공회 강화성당

병인양요

15 김대식

병인양요의 배경은 병인박해라고 전해지는 사건이다. 병인박해는 당시 조선 권력의 중심이던 흥선대원군이 1866년 초부터 1872년까지 전국에 천주교 급압령을 실시해서 프랑스신부를 비롯한 천주교신자들 수 천 명을 처형한 사건이다. 1866년에, 살아남은 프랑스 신부들에게 천주교박해 소식을 들은 프랑스는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고 프랑스군과 조선간의 군사적 충돌을 병인양요라고 한다.

1866년 9월에 프랑스는 로즈제독의 함대를 조선으로 파견한다. 로즈제독은 치밀한 작전을 세운다. 조선을 바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수로와 지형을 파악해서 공격을 준비하는 것이다. 준비를 철저히 한 로즈제독은 그 해 10월 14일 강화도를 공격한다. 조선군은 로즈제독의 치밀함에 당해 강화도를 프랑스군에 내주게 된다. 그래서 조선은 순무영이라는 임시 군대조직을 만들어서 장군 이경하, 이용희, 양현수에게 출정을 명령한다. 하지만 10월 26일에 벌어진 전투에서 조선군은 월등한 화력을 가진 프랑스군에 맞서 문수산성에서 싸웠지만 대패하게 된다.

여기서 양현수 장군의 전술이 전세를 뒤집는 계기로 작용한다. 아무리 프랑스군이 지리에 대한 대비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양현수 장군은 ‘어용방략(禦戎方略)’이라는 전술로써 강화도를 되찾을 작전을 세운다. 11월 7일, 심야에 강화해협을 건너서 정족산성에 침투한 조선군은 정족산성에 매복한 후 프랑스군이 정족산성으로 오기를 기다린다. 그 다음날 프랑스군이 정족산성으로 들어오자 조선군은 기습을 해서 대승을 거두게 된다.

정족산성에서의 대패 이후에 프랑스군은 11월 11일 중국으로 도망치면서 강화도에 있던 문화재들을 불태우고 약탈해간다. 그 중에는 강화도의 외규장각⁹⁾에 보관되어 있던 조선 왕조 의궤 296권이 포함되어 있었다. 책들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도 지정되어 있지만 안타깝게 아직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병인양요 이후 흥선대원군은 척화비를 세우고 자신의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 천주교를 더 강하게 박해하고 쇄국정책을 더 강화한다.

병인양요는 대한민국 반만년의 역사에 최초로 제국주의 제국의 침략을 자주적인 힘으로 막아내고, 조선의 자주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 때의 침략으로 인해 프랑스에 빼앗긴 문화재들을 아직도 되찾지 못한다는 현실에서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다.

9) 왕실의 문서를 보관하기 위한 장소

신미양요

15 정영찬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의 주요 격전지

“조선과 싸워 이기긴 하였지만 조선 병사들은 모래를 흠뿌리거나 혀를 깨물고 자살을 하며 또한 강물에 빠지는 등 우리에게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하였다.” 이 글은 신미양요에 참전한 어느 한 미군이 쓴 글이다.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 저항하면서 미군들에게 굴복할 수 없다는 조선병사들의 의지가 보인다.

1866년 초 흥선 대원군은 천주교 금압정책에 따라 프랑스인 신부 9명과 천주교도 수천 명을 죽이는, 병인박해를 일으켰다. 이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프랑스 함대가 공격을 해올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한 가운데, 그 해에 정체불명의 이양선 한 대가 대동강을 거슬러 평양까지 올라왔다. 그 이양선이 바로 제너럴셔먼호이다. 제너럴셔먼호는 프랑스함대가 쳐들어 올 것이라고 위협을 하면서 통상과 교역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선 관리는 통상이나 교역은 조선의 국법에 절대 금지되어 있고, 외국선의 출입은 국법에 어긋난 영토 침략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제너럴셔먼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러한 요구에 거절당하자 제너럴셔먼호는 대포와 총을 난사하는 난폭한 행위를 자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선 군민 중에 사상자가 발생하자 평양감사 박규수가 화공(火攻)으로 셔먼호를 불태우고, 선원은 몰살하였다. 이것이 신미양요의 구실이 된 제너럴셔먼호 사건이다.

1871년, 제너럴셔먼호 사건으로부터 5년 후, 미국은 조선을 개항시키기 위해 마침내 조선 원정을 결정하고, 5월 16일, 나가사키에서 출발하여 원정길에 올랐다. 그리고 6월 1일 강화해협의 탐측을 시작하였다. 함대가 손돌목에 이르자 연안 강화포대로부터 기습공격을 받아 최초로 군사적 충돌사건이 벌어졌다. 이를 ‘손돌목 포격사건’이라고 한다. 미국 대표는 조선 측에게 평화적으로 탐측활동을 벌이고 있는 미군 함대에 대한 포격은 비인도적인 행위라고 비난하였다. 그러면

서 포격사건에 대한 사죄 및 손해배상을 해줄 것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조선 측은 미국에게 국방, 안보상 가장 중요한 수로에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의 중무장한 병선이 항행하였다는 것은 영토 침략 행위라고 강경히 주장하면서 협상 및 사죄를 단호히 거절하였다. 이처럼 조선 측이 정식 사과를 하지 않자, 로저스 제독은 6월 10일 강화도에 대한 상륙작전을 실행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6월 10일, 미국함대는 대포를 사용하여 강화도 초지진을 완전히 초토화 시킨 후 배를 정박하고 육상대원들을 투입하여 무력으로 초지진을 점거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인 6월 11일에는 덕진진을 공격하여 무혈점령을 하였다. 덕진진은 조선수비대가 지키고 있었는데, 막강한 미군의 화력에 어찌할 도리 없이 무너져 내렸다. 덕진진을 점령한 미군은 마지막 점령지인 광성보를 향해 진격하였다. 백병전까지 포함되었던 광성보에서의 전투는 치열했다. 광성보에는 어재연장군이 이끄는 수비병들이 약 600여명 배치되어 있었는데, 함포 사격을 받아서 그 절반인 300여명 정도가 남아있었다. 하지만 미군부대의 강한 화력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어재연장군을 포함한 모든 병사들이 장렬히 전사하고 말았다. 미군은 고작 3명 정도의 병사가 전사하였다.

광성보 전투의 참패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미국 측의 협상을 계속 거절해왔다. 이에 로저스 제독은 더 이상의 협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내리고 7월 3일 조선에서 철수하게 된다. 곧 조선 정부는 이 철수를 미국의 패퇴로 간주하고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세웠다. 그 척화비의 내용은 “양이가 침범해도 싸우지 아니하면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자는 매국노이다.”라고 되어 있다.

미군의 강화도 내침은 분명한 제국주의적 침략전쟁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을 정복하여 영토 분할이나 식민지화하기를 위한 침략전쟁을 계획한 것은 아니었고, 자기네들의 포함외교방식으로 조선을 개항하려하였다. 그렇지만 조선의 문화나 그때 당시의 조선 내부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조선에 대한 통상이나 교역은 이루어지지 힘들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성공회 강화성당

15 고성진



▲ 강화 성공회 성당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위치해있는 강화성당은 '대한 성공회¹⁰⁾ 강화성당' 또는 '성 베드로와 바울로성당'이라고도 불린다. 1896년 강화에서 한국인이 처음으로 세례를 받은 것을 계기로 한국 성공회 초대 주교인 존 코르페가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한옥성당이다. 1900년대에 지어진 이 성당은 우리의 전통 건축 양식에 중세 서양의 건축 양식이 혼합되어 있는 세련된 건물이다. 성당의 내부는

서유럽의 바실리카 양식을 본떴으며, 외부에서 볼 수 있는 편액¹¹⁾, 주련¹²⁾, 종각은 성당이 마치 절인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만든다. 한국에 서양 건축물이 도입되던 시기의 건축물로 한국 그리스도교 역사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으며, 성당 내부나 외부에 서양식 장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초기 성공회 선교사들의 그리스도교의 한국 토착화를 위한 의지가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면 4칸, 측면 10칸으로 이루어진 구성은 전형적인 바실리카식 평면구성이며 입구 계단, 외삼문, 내삼문, 성당 그리고 사제관을 동남향 종축으로 배치한 외부공간의 구성은 불교사찰의 구릉지가람과 비슷하다. 외삼문은 솟을대문에 팔작지붕이며 보다 낮은 담장과 연결되어 있고 동쪽 칸에는 제2대, 3대 주교의 기념비가 있다. 내삼문도 평대문에 역시 팔작지붕인데 서쪽 칸이 종각으로 활용되고 있다. 용마루의 양 끝에는 십자가를 올려놓아 이곳이 성당임을 알리고 있고, 지붕의 내림마루와 추녀마루 위에는 용두를 얹었다. 또한 기둥에는 주련을 달아 놓아 창조주의 가르침을 깨닫게 했다.

존 코르페 초대 성공회 신부와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성공회 선교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인천에서 먼저 선교사업을 시작한 이들은 집 한 채를 빌린 후 정식 병원으로 만들어서 의료 활동을 하였다. 당시 외국인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10리 안에서만 집이나 토지를 매입 할 수 있었고, 또 서울 100리 이내 지역에서

10) 기독교의 한 교파인 성공회의 한국 교구

11) 건물이나 문루 중앙 윗부분에 거는 액자

12) 기둥이나 벽에 세로로 써 붙이는 글씨

만 여행증 없이 통행이 가능했다. 이처럼 생활 구역이 매우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공회 선교사들은 서울과 인천을 쉽게 다닐 수 있고, 가톨릭과 개신교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던 강화도를 선교지로 선택하였다. 이렇게 선교를 시작한 성공회 선교사들은 많은 애착을 가지고 강화도 선교활동에 임하였고, 1797년 후임인 조마가 신부 때 회당을 강화 읍으로 옮기면서 본격적인 강화도 선교활동이 시작되었다. 교회가 발전하자 조마가 신부는 1899년 가을, 현재 성당이 있는 위치에 새 성당을 짓기 시작하여 1년 만에 완공하였는데 이것이 지금의 강화성공회성당 건물이다.

<참고문헌>

1. 강화지석묘

강동석, 「강화 지석묘의 구조와 분포분석」, 『박물관지(博物館誌)』 4호, 2002

이형구, 『강화도』, 대원사, 1994

김재원·윤무병, 『한국지석묘연구(韓國支石墓研究)』, 1967

2. 전등사

박은우, 『강화의 세월』, 학연문화사, 2006

우리사찰답사회, 『경기도로 떠나는 사찰기행』, 문예마당, 2004

3. 정족산 사고

신병주, 『전통 명품의 보고, 규장각』, 살림출판사, 2012

신병주, 『규장각에서 찾은 조선의 명품들』, 책과 함께, 2007

4. 삼랑성

이형구, 『강화도』, 대원사, 1994

5. 고려궁지

강화문화원, 『강화 고려궁지 학술조사보고서』, 강화군, 2009

이형구, 『강화도』, 대원사, 1998.

한국문화유산답사회, 『답사여행의 길잡이7』, 돌베개, 2000

박영순, 『강화산성과 고려궁지』 국토연구원, 2004

6. 갑곶돈대

이형구, 『강화도』, 빛깔있는 책들, 1999

이경수, 「역사의 섬 강화도」, 신서원, 2002

7. 광성보

박용순 『광성보와 신미양요』 국토연구원, 2004

이경수, 『역사의 섬』, 신서원, 2002

이형구 『강화도 대원사』, 1995

이동미, 『강화도』, 김영사, 2004

8. 덕진진

이형구, 『강화도, 대원사, 1995

안옥근, 『호국의 섬, 강화도, 현대사회연구소, 2005

9. 초지진

김원모, 『근대한미교섭사(近代韓美交涉史)』, 홍성사, 1979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2

10. 병인양요

강상규, 「대원군의 천주교 탄압에 대한 정치학적 고찰 : 전환기의 한반도 리더십 분석」,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이상훈, 「병인양요시기 조선군의 염하수로 도하작전」,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13

11. 신미양요

이현희, 『이야기 한국사』, 청아출판사, 2006

전국역사교사모임,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휴머니스트, 2012

이상태, 『제너럴셔먼호 사건과 신미양요』, 국방부, 1987.

12. 성공회 강화성당

박은우, 『강화의 세월』, 학연문화사, 2006

서미원, 『성공회 강화성당을 찾아서』 새가정사, 2008

김정신, 『초기(初期) 한구성당건축(韓國聖堂建築)의 토착화(土着化)에 관한 연구(研究)>』 건축사, 1983

대한성공회, 『한국성공회사개관(韓國聖公會史概觀)』, 대한성공회출판부, 1980

강화도 지역개관

이형구, 『강화도』, 대원사, 1994

박은우, 『강화의 세월』, 학연문화사, 2006

강화 역사박물관

초등역사교육연구회, 『교과서로 만나는 역사체험 이야기』, 이담북스, 2015

문화재청, 『한국의 세계유산』, 놀와, 2010

ENDING CREDIT

지도 교수님

이상국 교수님

편집자

14 송주언

14 김경엽

14 김경현

15 이경주

15 김진오

제작자

역사기행반

아주대학교 사학전공 소학회

역사기행반

2015. 5.

